

Trend of Packaging Materials Market in Indonesia

# 인도네시아 포장재 시장 동향

- KOTRA 글로벌원도우(<http://news.kotra.or.kr/kotranews/index.do>) 자료 제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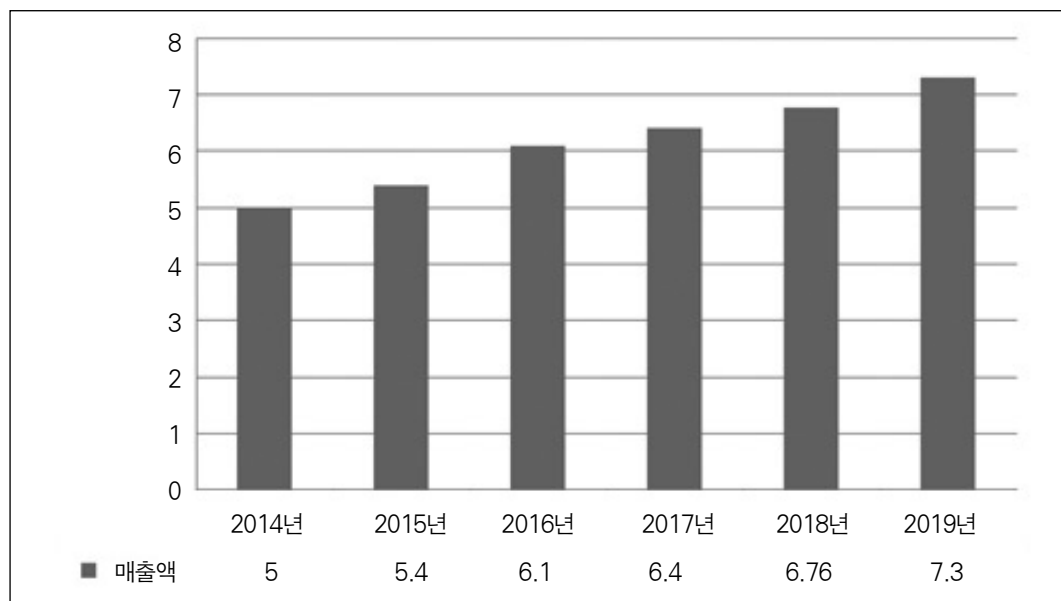
## I. 인도네시아 포장재 시장 동향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포장재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군에서 큰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의약품, 식음료, 미용 및 퍼스널케어, 홈케어 제품에 대한 수요는 포장재 산업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인구 규모 외에도 연 5%대의 경제성장에 따른 소비자의 가처분소득 증가, 유통시장의 발전 등이 인도네시아 포장재 산업 발전에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림 1) 인도네시아 포장재 산업 매출 규모

(단위 : 10억 달러)



(자료 : 인도네시아포장재협회(FPI) (2020.1))

[표 1] 인도네시아 소비재용 포장재 산업의 분야별 판매 규모 (단위 : 100만 개)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음료	57,778	60,917	65,733	67,028	69,014	71,973
식품	58,573	60,166	63,778	65,700	67,623	69,656
뷰티 및 퍼스널케어	8,460	8,692	8,947	9,175	9,422	9,681
홈케어제품	5,396	5,505	5,690	5,832	6,068	6,341
개, 고양이 사료	33	35	38	42	47	56
총계	130,240	135,315	144,185	147,778	152,175	157,704

(자료 : 유로모니터(2020.1))

특히 인스턴트식품 소비, 호기심을 자극하는 신기한 포장재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소비 패턴 변화 역시 포장재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제조업 중에는 식음료산업의 비중이 가장 크다. 이에 따라 소비재 산업 분야에서도 식음료 포장재의 판매 규모가 가장 크며, 화장품과 위생용품 등이 해당되는 뷰티 및 퍼스널케어, 홈케어 제품, 반려동물용(개, 고양이 등) 사료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 등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한편 최근 들어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친환경 포장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포장협회(Federasi Pengemasan Indonesia, FPI)의 헨리 위바와(Henry

[표 2] HS Code 별 주요 포장재 상품명

HS Code	상품명
3923.10	상자·케이스·바구니 등, 이와 유사한 물품
3923.21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것)
3923.29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3923.30	카보이(carboy)·병·플라스크(flask)와 이와 유사한 물품
3923.90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기타)
4819.10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으로 한정)
4819.20	접는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은 제외)
4819.30	폭이 40cm 이상인 포장대
4819.40	그 밖의 포장대(콘(cone)을 포함)
4819.50	그 밖의 포장용기(레코드 슬리브(record sleeve)를 포함)
7010.10	앰플
7010.20	마개·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
7010.90	기타(주사병 등 여러 병 종류)
7310.21	납땜이나 크리핑(crimping)으로 봉합되는 통
7310.29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탱크·통·드럼·캔·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기타)
7612.10	연질의 튜브형 용기(알루미늄 소재)
7612.90	신선한 우유 보관에 적합한 이음새가 없는 용기, 기타(알루미늄 소재)

(자료 : 인도네시아 재무부, 대한민국 관세청)

**[표 3] 최근 3년간 인도네시아의 주요 포장재 수입 규모** (단위 : 100만 달러)

HS Code	2017년	2018년	2019년
3923.10	99.76	117.43	130.54
3923.21	64.15	61.87	38.13
3923.29	59.81	65.24	58.11
3923.30	27.26	31.55	30.48
3923.90	80.87	103.13	123.34
4819.10	83.05	96.96	105.97
4819.20	91.44	99.88	90.05
4819.30	23.16	26.93	20.78
4819.40	13.58	16.46	22.46
4819.50	67.08	78.95	93.04
7010.10	0.82	1.20	0.95
7010.20	0.64	0.61	1.07
7010.90	87.36	85.48	96.85
7310.21	7.17	7.19	8.43
7310.29	12.02	13.53	20.02
7612.10	2.63	3.49	3.94
7612.90	36.60	25.49	13.45
전 세계	757.39	835.41	857.59

(자료 : Global Trade Atlas(2020.2.29.))

Wibawa) 협회장은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포장이 향후 트렌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다.

더욱이 일부 지역에서는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를테면 발리 주지사령 2018년 제97호는 2019년 1월부로 발리 내 일회용 비닐봉투, 스티로폼 및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을 금지했다. 서부자바 주 보고르에서는 보고르 시장령 2018년 제 61호를 통해 소매업자들이 소매매장 및 쇼핑몰에서 비닐봉투를 제공하는 행위를 2018년 12월부로 금지했다.

포장 생산업체 중 하나인 PT Indopoly Swakarsa Industry Tbk사는 환경 친화적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동사 관계자는 “환경 이슈를 사업 추진의 장애물이 아닌 사업 확장의 기회로 간주했다”고 밝혔다. 또한 생분해성 연포장의 시범 프로젝트를 시행 중으로, 인도네시아 내 식품 및 담배 기업에 적용됐다.

Indopoly 사의 제프리 할림(Jeffery Halim) 부사장은 “5년 전부터 생분해성 제품 개발을 진행해왔으며, 해당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에서 포장재를 주로 수입하는 국가는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한국, 독일, 이탈리아, 미국, 영국 순이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중국으로, 중국이 인도네시아로 주로 수출하는 포장재는 제지와 플라스틱 소재의 포장재로 집계됐다.

(표 4) 상위 10개국 수입 동향

순위	국가	2017년	2018년	2019년
1	중국	276.44	303.50	345.51
2	태국	107.93	125.68	134.20
3	말레이시아	84.66	86.87	81.99
4	싱가포르	60.54	64.49	62.11
5	일본	69.11	75.78	55.75
6	한국	23.51	22.85	25.01
7	독일	12.51	15.76	16.85
8	이탈리아	3.32	4.35	7.10
9	미국	11.40	12.559	7.00
10	영국	1.00	1.94	2.17
전 세계		757.39	835.41	857.59

(자료 : Global Trade Atlas(2020.2.29.))

주) 상기 HS code 합산에 따른 순위

## Ⅱ. 최근 3년간 수입규모 및 상위 10개국 수입동향

최근 3년간 인도네시아의 주요 포장재 수입 규모는 증가 추세로, 이는 환경보호 정책에 관한 추진과 관련 캠페인 이행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소재의 포장재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플라스틱류 포장재뿐 아니라 종이류와 철강소재의 포장재의 수입산 수요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인도네시아의 주요 포장재 수입 실적은 8억 5,759만 달러로 전년 대비 2.7%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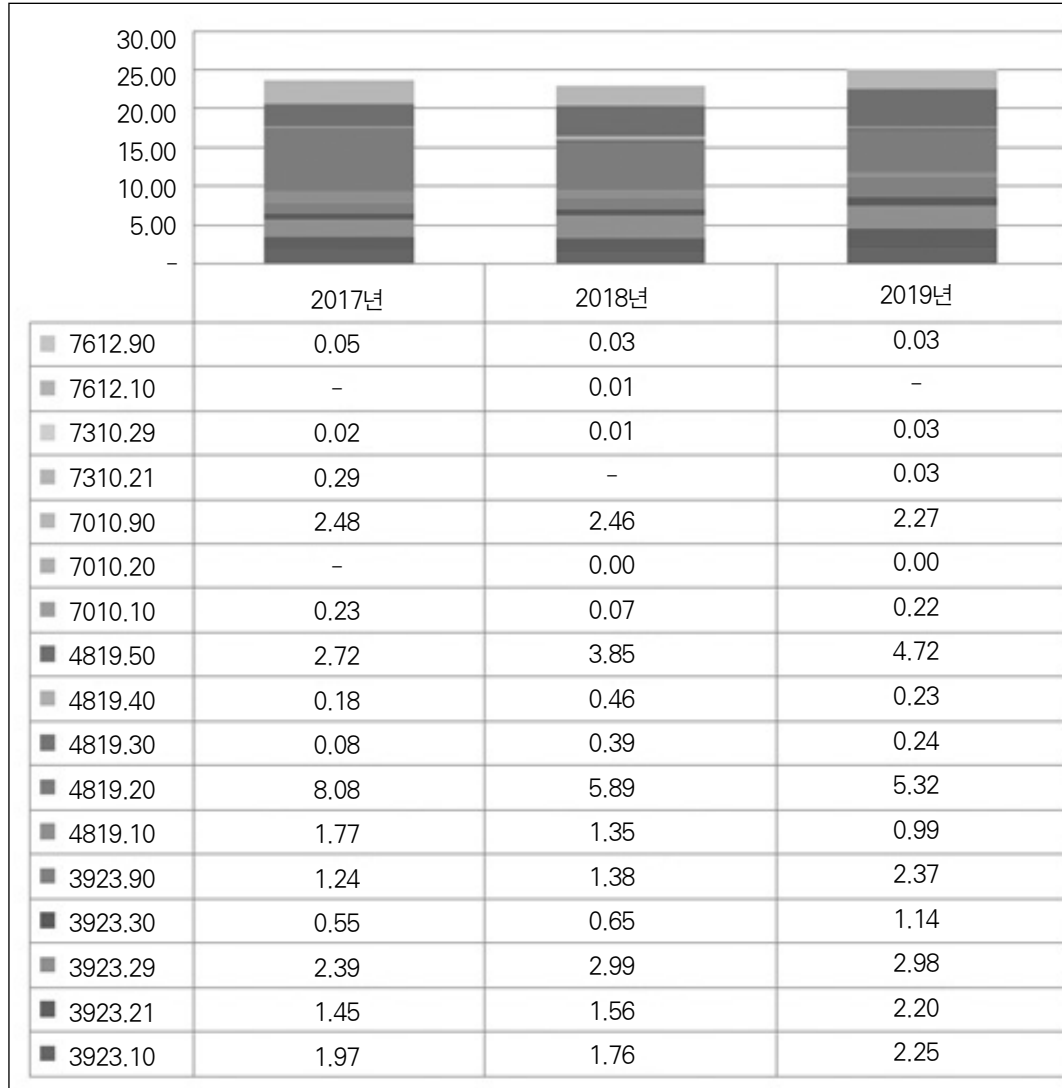
인도네시아에서 포장재를 주로 수입하는 국가는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한국, 독일, 이탈리아, 미국, 영국 순이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중국으로, 중국이 인도네시아로 주로 수출하는 포장재는 제지와 플라스틱 소재의 포장재로 집계됐다.

## Ⅲ. 대한 수입규모 및 동향

Global Trade Atlas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국산 주요 포장재의 수입 규모는 2,501만 달러로 전년 대비 9.5% 증가했다.

2019년 인도네시아의 한국산 포장재 수입 중 제지 소재의 수입이 가장 큰 규모로 집계됐고, 그 다음으로는 플라스틱 소재의 포장재 수입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한국산 알루미늄, 철강 및 기타 소재의 포장재의 수입 실적은 258만 달러로 플라스틱과 제지 소재의 수입액 규모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최근 3년 인도네시아의 한국산 주요 포장재 수입 실적









[자료 : Global Trade Atlas(2020.2.29.)]

#### IV. 유통구조 및 관세율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포장재는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로부터 소비재 제조업으로 유통되거나 여러 단계의 유통업자를 거쳐 소매 유통점포 및 중소기업에 납품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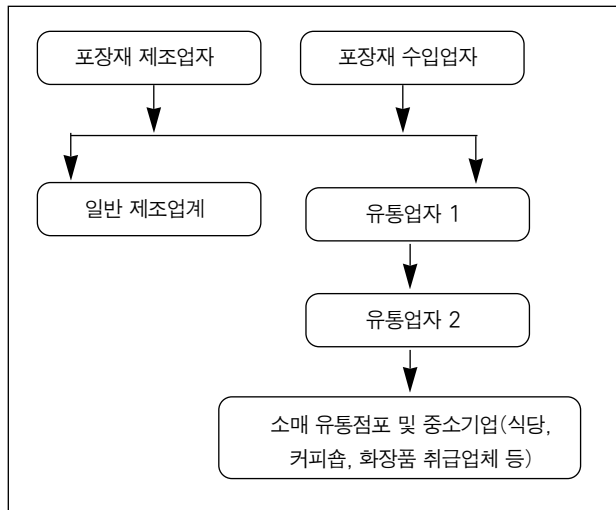
포장재와 관련한 수입 규제에는 HS Code에 따라 보건부 측의 PKRT 유통 허가 또는 선적 전 검사와 사전수입승인이 필요한 제품일 수 있어서 사전에 인도네시아 재무부 및 무역부, 보건부 등 관련 당국에서 요구하는 인허가를 취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5] 인도네시아 포장재 주요 기업 경쟁 기업 및 동향

기업명	로고 및 제품 사진	기업 정보
PT Berlina Tb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년도 : 1969년</li> <li>○ 종업원 수 : 1,636명</li> <li>○ 기업 정보 : 현재 PT Berlina Tbk는 동부 자바 주 파수루안(Pasuruan)의 판다안(Pandaan)과 겐뵐(Gempol), 동부 자바 주 시도라조(Sidoarjo), 서부 자바 주 씨까랑(Cikarang) 그리고 중국 허페이(Hefei) 지역에 각 1개, 반덴 주 땅그랑(Tangerang) 지역에 2개로 총 7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음.</li> <li>○ 사업 분야 : 플라스틱 포장, 플라스틱 밀폐용기, 칫솔, 압출필름 및 전자·전기제품용 주입 부품, 식품 용기, 담배 케이스, 고정밀 사출 금형, 멀티 캐비티 블로몰드 생산</li> <li>○ 순 매출액(단위 : 1조 루피아) : 2016년 1.36, 2017년 1.31, 2018년 1.32</li> <li>○ 홈페이지 : <a href="http://www.berlina.co.id/">http://www.berlina.co.id/</a></li> </ul>
PT Dynaplast Tb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년도 : 1959년</li> <li>○ 종업원 수 : 3,800명</li> <li>○ 기업 개요 :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에 14개의 생산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이밖에 싱가포르, 일본, 태국 등지에서 합작 투자 파트너십을 맺고 있음.</li> <li>○ 주요 고객사 : PT Unilever Indonesia Tbk, PT Reckitt Benckiser Indonesia, PT Johnson &amp; Johnson, PT Sara Lee Body Care Indonesia, PT Coca Cola Bottling, PT Citra Kreasi Perkasa(필름가 전제품 제조업체), PT Wiraswasta Gemilang Indonesia(펜조일 윤활유 제조업체) 등의 고객을 보유함에 따라 플라스틱 포장 및 플라스틱 밀폐용기 부문에서 확고한 입지를 가지고 있음.</li> <li>○ 사업 분야 : 플라스틱 포장, 플라스틱 시트 및 정밀 사출성형 구성품(자동차, 배터리, 전기, 전자, 컴퓨터 및 가전 산업용) 생산</li> <li>○ 홈페이지 : <a href="http://dynaplast.co.id/">http://dynaplast.co.id/</a></li> </ul>
PT Indopoly Swakarsa Industry Tb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년도 : 1995년</li> <li>○ 종업원 수 : 1,250 명</li> <li>○ 기업 정보 : 서부 자바 주 푸르와카르타(Purwakarta) 지역에 연간 6만 5,000톤 규모의 제조시설 1개를 운영 중임.</li> <li>○ 주요 고객사 : PT Indofood Sukses Makmur Tbk, PT Djarum Tbk, PT Gudang Garam Tbk PT, PT Unilever Indonesia Tbk 등과 같은 포장 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체가 있음.</li> <li>○ 사업 분야 : 일용소비재 및 기타 비포장 용도의 유연하고 특수한 필름 포장 및 라벨 생산</li> <li>○ 순매출액 (단위 : 백만 달러) : 2016년 196.63, 2017년 198.93, 2018년 211.57</li> <li>○ 홈페이지 : <a href="http://www.ilenefilms.com/">http://www.ilenefilms.com/</a></li> </ul>

[자료 : 각 기업 홈페이지(2020.1)]

(그림 3) 인도네시아 포장재 유통 구조



(자료 : 기업 사례 종합, KOTRA 자카르타무역관)

## V. 결론

플라스틱, 제지, 유리, 알루미늄, 철강 등 전통적인 소재의 소비재용 포장재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친환경 소재의 사용이 증가할지라도 편리성과 제품 보관의 용이성 등으로 인해 당분간은 해당 소재로 제작된 포장재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산 포장재의 수요도 수입시장 6위로 수요가 높은 편이지만, 선진국산 제품보다 중국산과 태국산 등 제품의 수입시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아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 품목으로 보인다.

포장재 업계에서 사업 경험이 풍부한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을 파트너로 선택하는 것 역시 중요한데, 숙련된 파트너사는 매출 증가를 도울 뿐만 아니라 통관 처리가 전반적으로 원활하기 때문이다.

허유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은 “우리나라 기업이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을 대상으로 포장재의 직접 유통을 진행한 경험이 있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를 지정하는 것 또한 인도네시아 소비재 포장재 시장으로의 원활한 진출 방법의 하나”라며 “파트너사가 주요 거래처를 상대로 직접 유통을 하며 복잡하고 긴 유통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새로운 물건에 대한 단발성 호기심이 높은 편인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은 포장재의 독창성이 제품의 구매로 연결되는 경향이 있는 바, 참신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포장재가 각광을 받을 것이며, 상류층을 대상으로 한 고급 재질의 포장재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3년간 인도네시아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비닐봉지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공포되면서 친환경 소재 포장재에도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바나나 잎, 카사바 잎 등을 이용한 식품 용기나 포장재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소재 용기 관련 사업을 구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친환경 소재 포장재의 내구성, 비용 등에 따라 소비 규모가 결정될 수 있어서 친환경 소재 포장재 사업에 앞서서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